

분과별 심포지엄 참관기

The Report of the 42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제2분과

건설, 안전, 방재



글 | 金學清
(Kim Hak Chung)

- 토질및기초/토목시공 기술사
- (주)신우지오엔지니어링 사장

E-mail: hcksw@nate.com



▲ 제2분과 전경

오전 주제발표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분과별 발표가 있었다. 좌장은 무로나카 요시히로(室中善博/환경), 부좌장은 김두환(화공안전) 기술사가 수고하였다. 통역은 김현아(치요다 화공건설주식회사/공학박사)가 수고 해주었다. 한일양국에서 각 3인 씩 총 6명이 발표하기로 하여 30분 발표, 5분 질의 응답, 3명 발표 후 15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후 5시 30분 내에 마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 측 마쓰다니(松谷孝廣/건설/종합기술감리) 기술사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Cycle」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사회적 책임 등을 지어야 하니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오전 중에 사고가 많고, 현장 투입 첫날, 그리고 3m이하의 낙상사고가 많다.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발생률이 높고, 공사 중 현장주변 청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필자로서 「홍천군 사면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의 제목으로 홍천군의 풍수해 저감대책 중 사면재해만을 정리하여 발표 하였는데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검

토하여 총5개소 10개 현장에 대하여 사면완화, 식재, 배수공 등으로 사면재해가 저감될 수 있는 조치를 보고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일본 측 히라노 요시히코(平野吉彦/응용이학/종합기술감리) 기술사의 「일본에서 토사재해 대책과 방재상의 과제」란 제목으로 토사 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대책 공, 사면활동 대책공, 토석류 대책공 등을 활용하고 호우, 지진, 사면붕괴 등의 발생증가와 기초대책 시설물의 50년 이상 경과로 인한 노후화,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대피 훈련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는 한국 측 안희찬(토목시공) 기술사로 「송도4교(사장교) 주탑 제진 장치 설치계획」란 제목으로 송도4교는 196m 2경간 사장교로서 주탑이 복합트러스 강재이며 개활지에 위치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탑 내부에 전자형 동조 질량 감쇠기(TMD)를 설치하여 진폭을 7%이하로 감쇠시킨 내용을 발표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일본 측 마끼야마(牧山昭彦/건설/도시계획) 기술사로 「안전·안심의 사회를 향한 생각-긴 인생으로 뒤돌아보다」의 제목으로

한·중·일 3국의 국민감정을 서로 잘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도와 힘을 합해 살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여섯 번째 발표자는 한국 측 유충현(도시계획) 기술사의 「SAFARI ISLAND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인데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일

원에 약 660,000m²의 해양관광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휴양형 관광 산업 INFRA 구축, 야생 SAFARI 형태의 동물원 건설 등을 발표하였다,



▲ 제2분과 마치고 : 맨 앞줄 왼쪽에서부터 김학청, 안희찬, 박경부, 김두환, 무로나카, 유충현, 마쓰다니